

상벌점제도 성공사례

김 정 식

이천중학교 수석교사

<http://sciencelove.com/>



1. 2012년도에 수업이 힘들 정도로 학생들 기본생활습관이 망가져 있어서 모든 선생님들이 힘들어 하였고, 적극적으로 지도하시는 선생님은 경찰에 신고당하는등 교원의 사기도 많이 떨어져 있었음.

2. 기본 생활지도를 잡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선생님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함.

3. 겨울방학 동안 기본생활지도가 안되는 이유와 대책을 마련함

가. 체벌이 금지된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카드는 상벌점 밖에 없음

나. **상벌점 제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문제점)**

- 1) 벌점카드 휴대가 불편함
- 2) 벌점을 주려면 교무실로 데리고 와야하므로 귀찮음
- 3) 벌점을 주는 경우 학생과의 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함
- 4) 벌점을 받아도 그때 뿐이고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음. 벌점을 준 선생님은 속상한데 학생은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함. 심지어는 재수가 없어서 본인만 받았다고 억울해 함.
- 5) 벌점을 주어도 학생들이 무서워하지 않음 - 교내봉사 하는 학생들이 자랑스럽게 복도나 교단을 활보하며 다님
- 6) 수업시간에 사용못함 : 교사지시 불이행 8점 - 벌점이 너무 커서 수업시간에 잘못하는 학생에게 함부로 벌점을 주지 못함.
- 7) 벌점을 주는 선생님이 이상한 선생님이로 보임
- 8) 사실 벌점을 주라고만 했지 어떤 경우에 어떻게 줘야 할지 교사들도 잘 알지 못하고, 학생들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
- 9) 벌점을 주고나서 사후 처리가 복잡하고 귀찮음
- 10) 담임에게 벌점 받은 학생을 알리기가 귀찮음.
- 11) 학교전체가 통일되지 않아 혼란스러울 때가 있음
- 12) 흡연을 하거나 잘못된 학생들이 너무 떳떳해 함.

다. **해결책(위 문제점에 각 항목번호에 대한 해결방안)** - 머릿속으로 수도없이 시뮬레이션 하며 구상함.

- 1) 벌점카드를 휴대하기 편하게 제작(교사 명찰에 넣고 다닐 수 있도록)
- 2) 볼펜이 없어도 벌점을 줄 수 있도록 OMR카드 형태로 제작함.(볼펜이 없으면 손톱으로 찢어서 반번호를 표시할 수 있음 - 언제든지 벌점부여 가능 - 교무실에 와서 손톱자국을 보고 제대로 적어서 벌점통에 넣으면 됨)
- 3) 벌점 부여시 학생이 **잘못을 인정하면 벌점을 1/2로 줄여줌**. 반항하면 2배의 벌점부여. - 학생들은 일단 벌점이 부여될 때 자동으로 '죄송합니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교육 필요
억울한 경우에도 선생님 앞에서 항의하는 것은 벌점이 2배로 부여되는 결과를 초래함 억울한 경우 학년부장님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줌 - 벌점카드에 명시 - 사전교육
(대부분의 학생이 벌점카드를 보는 순간 반사적으로 죄송합니다 라는 말이 나옴)
- 4) **벌점카드를 딱지 떼듯이 만들어 벌점을 부여**하면 반쪽을 잘라 학생에게 줌 - 학생은 종례시간 이후에 담임에게 딱지를 제출해야 함. - 학생이 담임에게 딱지를 제출할 때 까지 보면서 계속 생각하게 됨. 심지어는 옆에 친구들에게 보여주면서 자신이 받은 벌점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주변학생들에게 홍보가 되어 잘못된 행동을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듦. - 추후 담임선생님이 1번 더 지도하는 효과가 나타남 - 사전교육 철저

<상벌점카드>					이름	날짜	날짜	학번	이름	별점
①	①	①	①		사		사		수업	
②	②	②	②	②	유		유		여부	③
③	③	③	③	③	<input type="checkbox"/> 수업 시간 여부					④
④	④	④	④	④	담임선생님에게 당일(종례시간) 제출					⑤
⑤	⑤	⑤	⑤	⑤	제출안하면 벌점 2배 (벌점 누계 5점 단위로 성찰교실 입소 벌점 누계 20점이면 선도위원회 회부)					⑥
⑥	⑥	⑥	⑥	⑥	수업 시간 벌점은 당일 부모님께 문자발송					⑦
⑦	⑦	⑦	⑦	⑦	벌점부여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학년부장님께 이의를 제기하여 벌점여부를 재확인 받을 수 있음.					⑧
⑧	⑧	⑧	⑧	⑧	<집중단속> 실내화미착용 수업방해					⑨
⑨	⑨	⑨	⑨	⑨						⑩
⑩	⑩	⑩	⑩	⑩						⑪
⑪	⑪	⑪	⑪	⑪						⑫
교사 : 김정식					<input type="checkbox"/> 잘못인정 1/2 <input type="checkbox"/> 불손태도2배					⑬
					발급교사 김 정 식					⑭

경고장

2번째 경고입니다.

1회 추가 경고 시 교칙에 따라
 벌점이 부여되며 수업시간에
 받은 벌점은 점수에 상관없이
 방과 후 부모님께 문자가
 발송됩니다.

<벌점카드>

<학생에게 찢어주는 부분>

<수업시간에만 사용하는 경고장>



<볼펜이 없을때 손톱으로 표시>

<교무실에 와서 자세히 기록, 우측은 학생에게 주는 딱지>

5) 성찰교실 운영으로 벌점을 받은 학생은 방과후에 5점단위로 성찰교실에 강제 입소하게 함 - 단 성찰교실 제1수칙은 절대 누구와도(선생님과도) 말하지 않는다 임

성찰교실에 자진입소할 경우 -1점씩 벌점을 상쇄시켜 줌.

(휴지를 버리거나 침을 뱉는등 벌점을 받은 경우 받은 벌점을 없애기 위해서 방과후에 1시간을 성찰교실에 자진입소해야 함.- 귀찮음.)

5점이 되면 강제입소가 되며 강제입소시에는 벌점이 상쇄되지 않음. - 사전교육 철저

성찰교실 운영은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운영. 입소된 학생은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담당교사는 교무실에서 할 일을 성찰실로 옮겨서 자신의 일을 하면 됨.

1. 성찰교실 규칙(전체)

 - 어떠한 말도 하지 않는다.
 - 배정해 주는 책상에서 학습한다.
 - 학습지 한 가지를 마무리 한다.
2. 성찰교실 행동 순서(학생용)

 - 화장실을 먼저 다녀온다.(입소 후 화장실 못감)
 - 절대 말하지 않는다. (질문도 안됨)
 - 담당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배정된 책상에 앉는다.
 - 담당 선생님이 주는 학습지를 읽고 안내에 따라 작성한다.
 - 학습지가 끝나면 담당 선생님께 제출한다.
 - 운영일지 학생 확인란에 싸인 후 퇴소한다.
 - 말을 하거나 해당 학습지가 미흡한 경우 퇴소 조치되며, 이 경우 재 입소해야 한다.
 - 통제에 따르지 않을 경우, 1회 경고(해당학생 옐로우카드 부여) 후 2회 퇴소

<성찰교실 수칙>

순 번	날 짜	학번	이름	입실시간	퇴실시간	담당교사	교사 확인	학생 확인	비고 (이수,미이수)

<성찰교실 운영일지>

6) 수업시간 교사지시 불이행 벌점 2점으로 하양조정 : 큰 부담없이 작은 벌점을 반복해서 부여할 수 있도록 함. (학생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죄송하다고 하면 1점으로 부여됨 - 담당교사가 벌점 기록시 잘못인정여부를 확인한 후 벌점을 1/2로 감해서 입력) - 대부분의 벌점을 2점으로 모두 하양 조정함.

특히 수업시간에는 1차 경고, 2차 경고장 발부, 3차 벌점부여 순으로 벌점부여 방법을 통일함.

그리고 수업시간에 받은 벌점에 대해서는 점수크기에 상관없이 방과후 부모님께 일괄적으로 문자를 발송함.

2차 경고장을 발부함으로써 갑자기 벌점부여로 인한 교사와 학생과의 마찰을 줄이고 학생들의 행동에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됨. 또한 벌점카드만 봐도 죄송합니다 라는 말이 자동으로 나오게 되어 교사입장에서 마찰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됨

(실제로 수업시간에 벌점이 부여되는 경우가 거의 없음) - 선생님들이 가장 만족해 하는 부분

오늘 수업시간방해로 교과선생님께 의해 벌점이 부과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천중-

<부모님께 발송되는 문자내용: 80자>

7) 봄방학 2월27일 1시간 전교사 연수 후 1시간동안 학년별 협의회를 통해 학년별로 별점제도 운영방법 성찰교실 운영 방법을 결정하게 한 후 의견을 취합함. 중앙통제를 최소화 하고 학년별 운영방법을 존중해 줌 - 위에서 지시가 아닌 아래로부터의 의견이 나올 수 있는 분위기 조성

3월 개학날 다시 한번 별점제도에 대해 연수한 후 담임, 교과담당 교사들이 첫 주에 시간이 날 때 마다 별점제도를 학생들에게 홍보하도록 함. - **철저한 사전 홍보가 중요함(성공여부를 결정함)**

8) 3월 첫 주 동안 시범기간으로 운영하면서 별점제도를 실제와 똑같이 운영하게 함. 첫 주 동안 받은 별점은 첫 주가 지나면 초기화 되므로 아무리 받아도 학생에게 불이익이 없음. - 교사들은 아무 부담 없이 학생들에게 별점을 남발할 수 있음. - 학생들도 부담 없이 별점을 받으면서 '수업시간에 이런 경우에도 별점을 받을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함.

시범운영하면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수정 보완함.

9) 학년별 별점카드통을 만들고 선생님들이 발급한 별점을 통에 넣기만 하면 담당선생님이 방과후에 일괄적으로 처리하고 입력함. - 수업시간에 발급된 별점에 대해서는 담당선생님이 일괄적으로 부모님께 문자 발송함. - 별점을 주는 선생님은 부담이 전혀 없음. (구글 문서를 활용함-로그인할 필요가 없으므로 재빨리 처리가 가능함)

구글문서에서 : <http://gg.gg/43lv>(접속해서 마음대로 수정해봐도 됨)

별점통도 중앙에서 통제하지 않고 각 학년별로 만들어 사용하도록 재량권을 부여 했더니, 중앙에서 생각한 것보다 훨씬 좋은 별점통 아이디어가 나옴

- 아래사진처럼 창의적인 별점통이 만들어짐. 다른학년도 아래 별점통을 사용할 예정
- 각반이 표시되어 있어서 별점을 부여한 선생님은 각반 서랍을 열고 별점카드를 넣으면 되고, 담당 선생님은 별점을 입력후 각반 서랍 뒤쪽에 넣어서 누적 보관하도록 함.



<교무실에 비치한 반별 구분이 되어있는 별점 통>



<해당반을 열고 별점카드 보관>

10) 담임 선생님은 학생이 가져온 딱지를 확인하고 지도한 후 구글문서에 들어가서 확인함(확인을 안하면 학생의 별점이 2배가 됨) - 담당교사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도 확인이 안되면 담임에게 확인한 후 딱지가 안돌아 왔으면 그대로 별점을 부여함.

구글문서에서 : <http://gg.gg/43lv>(접속해서 마음대로 수정해봐도 됨)

11) 학교전체를 통일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버림. 모든 별점체계는 학년부장 중심으로 학년에서만 통일하도록 권장함. 성찰교실 운영도 학년별로 알아서 운영(1주일에 매일 운영, 또는 격일로 운영 등등) 중요한 사항은 학생부에서 결정하지만, 나머지 자잘한 부분은 학년부끼리만 통일하면 됨(예를 들면 3학년은 실외화를 집중단속할 때 1학년은

쓰레기버리는 것을 집중단속할 수 있음. 학년부가 중심이 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빠르고 협조도 빠르게 진행됨) - 대부분의 학교가 학교전체를 통일시키려 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경향이 있음.

성찰교실 운영은 3월 한달만 학년에서 운영하고 4월부터는 3개학년을 통합 운영하기로 함.

- 12) 교내 3학년 화장실에서 담배냄새가 나는 경우 8교시에 3학년 전체를 남겨 흡연교육을 시킴 - 담배피는 학생들이 학우들에게 떳떳하지 못하도록 함.(교장선생님의 협조가 필요 - 교장선생님 지시가 아니라 학년선생님들의 요청에 의해 교장선생님이 승낙하는 형태로 진행함 - 가능하면 학교교육과정에 특별교육(흡연예방교육, 환경교육, 소방교육 등)형태로 시간만 잡아놓고 문제가 발생하는 시점 8교시에 교육함)
장난으로 소방벨을 울리는 경우 - 수업을 중단하고 1시간 소방교육을 실시함. 못한 수업은 그날 방과후에 전체 1시간 보강하도록 조치할 예정

4. 차별이나 욕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전제교사가 학생들에게 새로운 벌점제도의 방향을 철저하게 설명하고 실행함. - 특히 수업시간에 강력하게 실행함. - 선생님들이 효과를 보면 자동으로 정착됨 - 사전협의 반드시 필요

5. 결과 : 이전보다 훨씬 생활태도가 좋아짐. 특히 수업시간에 큰 소리로 야단칠 필요가 없어짐. 2차 경고장까지 발급되면 대부분의 학생이 알아서 조용히 함. 전체적으로 조용한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나머지 아이들까지도 수업태도가 개선됨.

< 선생님들의 반응>

○선생님 : 작년 3월 첫 주가 지난 후 목이 쉬었는데 올해는 신기하게 목이 말짱해요.

○선생님 : 수업시간에 소리를 지를 필요가 없어졌어요. 경고장만 꺼내도 아이들이 알아서 조용히 해요.

○선생님 : 작년에는 벌점을 부여하면 항의하거나 기분 나빠 하는 학생이 많았는데 올해는 벌점을 부여할 때 학생들이 죄송 합니다 라고 인사하고 받아들이니 너무 기분이 좋아요.

○선생님 : 수업시간에 자는 학생도 경고장을 발부하면 벌점을 안 받으려고 자진해서 일어나서 뒤에 가서 서있는 등 안 자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너무 기특해요.

○ 환경부 선생님 : 애들이 이상해졌어요. 급식실에 껌질 있는 반찬이 나왔을 때 학교가 온통 쓰레기장처럼 변했는데 올해는 쓰레기가 거의 없어요. 신기해요.

○급식실 : 밥을 타가는 학생들도 예의있게 행동을 하고, 잔반 처리할때도 잔반을 국그릇에 모아서 버려요.

○전임교사 : 학생들이 상당히 안좋다고 듣고 걱정 많이 하고 왔는데 아이들 너무 착한 것 같아요. 말도 잘 듣구요.

6. 성공여부

선생님들이 벌점카드를 이용하여 효과를 보고 있고 학교가 많이 좋아졌다는 인식이 생겨났으므로 2주밖에 안 지났지만 성공한 것으로 보임. 왜냐하면 이제는 관리자가 벌점을 주라고 강요하지 않아도 효과를 본 선생님들이 자진해서 벌점을 부여하고 처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

7. 중요한 사실 : 벌점제도가 영향을 미친것도 있지만 모든 선생님들이 함께 움직였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음. 선생님들께 협조해 달라는 말도 중요하지만 선생님들이 쉽게 움직일 수 있는 대안이나 체계를 마련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함. 아울러 학년부장님들을 비롯한 각 부장님들이 앞장서서 교육하고 격려하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단기간에 뿌리를 내릴 수 있었음.

8. 잊지 말아야 할 사실(꼭지로 부탁드렸던 내용)

벌점제도는 교육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교사는 경찰처럼 범죄자를 잡아 벌을 주기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점은 교사는 학생들이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것을 예방하고 선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이런 벌점제도를 잘 홍보하여 많은 학생들이 교칙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아닐까요?

초기에 벌점을 많이 부여하는 것이 교육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으나 나중에 더 많은 학생들이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믿기에 모든 선생님이 함께 해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보고도 벌점을 주지 않으면 벌점을 주는 선생님만 나쁜 선생님이 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벌점제도가 정착되어 학생들의 태도에 변화가 일어날때까지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수업시간 만큼은 교사가 학생들을 통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학생들 통제가 안되면 어떤 수업기법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10. 우리학교 선생님들과의 약속대로 잘 정착되면 다른학교에도 우리학교의 성공사례를 보급해서 학생지도에 도움을 주기로 한 약속을 지킵니다.



<벌점 카드 가지고 다니는 방법과 경고장 코팅모습>

아직 2주밖에 안되어서 완전히 성공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비해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상점은 그린마일리지를 통해 담임선생님이 입력하기로 하였고, 벌점은 운영된 벌점사항을 가지고 1달에 1번씩 그린마일리지에 입력하기로 하였습니다. 머릿속으로 수많은 시뮬레이션을 했고, 발생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2주동안 운영하면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수정하고 보완했습니다. 지금도 계속 개선중이며, 앞으로 발생할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중입니다. 학생생활태도가 개선되고 수업분위기가 조성되었으니 이제는 수업개선쪽에 신경쓸 수 있을 것 같네요. ^^

궁금하신점이나 선생님에게 교육한 자료가 필요하시면 sciencej@hanmail.net 으로 문의 주세요.